

전주한벽문화관, 전시공간 활성화 꾀한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REFLECT_몽·死·自·하루·섬·코코·류'展 5월 4일까지 진행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REFLECT_몽·死·自·하루·섬·코코·류'展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벽전시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시공간과 예술단체가 매칭해 전시를 기획·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4일 전주한벽문화관에 따르면 컨템포러리 아트(동시대 미술)을 추구하는 작가그룹인 씨아트컴퍼니(대표 장신정)와 매칭해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참여 작가로는 김현수, 박형주, 손인선, 이주은, 장신정, 장진경, 차소립 등 7인으로, 이들이 삶을 성찰하면서 얻어진 유·무형의 것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해석으로 풀어냈다.

특히 전시명 'REFLECT'에는 작가 개개인의 시선으로 '삶을 관조한다'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각자가 바라보는 삶의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를 각자의 예술적 기법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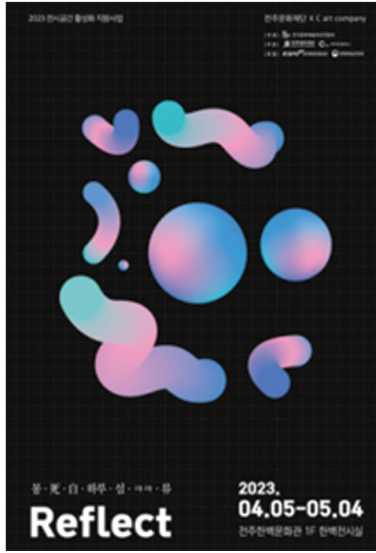
또 표제이면서 부제이기도 한 '몽·死·自·하루·섬·코코·류'는 일곱 작가가 뽑아낸 개별코드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몽: 시공을 넘나드는 꿈을 꾸고, 死: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살피며, 자: 스스로 관계하여 구축되고, 하루: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섬: 섬을 마주하고, 코코: 놀이와 해학을 담아내고, 류: 단절이 아닌 연결돼 흐르는 풍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신정 대표는 "전시를 통해 버려왔던 '나'를 되찾고, 미시적이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시각과 사고를 넘나들며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한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전시 기간 중 자연물을 감상하고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해 보는 체험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와,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활용한 자화상 그리기 'self expression' 등 두 개의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벽문화관(j.or.kr) 누리집이나, 콘텐츠사업팀으로 문의(063-280-7046)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REFLECT_몽·死·自·하루·섬·코코·류'展 포스터

영화 소풍 함께할 기업 파트너 모집

무주산골영화제, 홍보 부스도 선착순 접수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2023. 6. 2~6. 6)가 열한 번째 여정을 함께할 기업 파트너 및 홍보 부스를 모집한다.

낭만영화제로 손꼽히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영화 소풍을 함께할 기업 파트너를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2013년부터 업선된 국내외 영화로 구성된 특색 있는 영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안착, 영화와 여가를 즐기는 2030 관객부터 캠핑을 즐기는 가족 관객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영화 축제로 호평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10주년을 맞이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영화제 고유의 특징을 살려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10여년간 2030세대 및 가족 관객들로부터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문화 파트너로서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홍보마케팅팀(mujufilmfest@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 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정 기부로도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 파트너에게는 올해 영화제 기간 내 기업



광고 영상 노출 및 공식 홍보물을 통한 광고, CI 노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 홍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후원을 통한 공식 문화 파트너 외에도 영화제 기간 내 기업과 단체의 브랜드를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별도로 모집한다. 홍보 부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사무국 홍보마케팅팀으로 소개서와 홍보 부스 운영안을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 '넥스트 액터'로 배우 변요한을 선정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제50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준비 박차

판소리·현악·관악·무용·민요 5개 분야 13종목 진행

제50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제93회 춘향제 기간중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국악대전은 1931년 전국의 국악 예술인들이 모여 장기를 뽐내던 교류의 장, 춘향 제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공연들이 자연스럽게 일반대중들의 불거리로 자리 잡았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경연대회로 발전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경연대회는 안을했던 일제강점기에 국민에게 큰 위안이었으며 명창 등용문으로 위상이 높았다고 한다.

현대적인 경연방식은 1974년 전국 최초 제1회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로 발전해 조상헌 명창이 대상을 받았으며, 제24회 때부터는 판소

리 이외에 현악, 관악, 무용, 민요 등 종합경연대회로 발전해 대회 명칭도 춘향국악대전으로 바꾸었다.

이번 제50회 춘향국악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춘향국악대전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주관하며, 3월 초부터 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진 및 운영위원회를 출범하여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 및 문화재단 명인 명창과 언론인, 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50회 춘향국악대전의 운영방침 및 대회 요강 등을 확정하였으며, 운영위원장에는 춘향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남원문화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주완 원장이 추대되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최고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를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 운영을 통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대회 및 심사 규정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명창부 경연 심사에 있어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을 별도 운영하는 것과 청중평가단 20명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국악 등용문으로서 책무를 다하자고 결의했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 현악, 관악, 무용, 민요 5개 분야 13종목이 펼쳐지는데 5월 26일~28일 판소리 명창부 예선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지며, 명창부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일반부 국회 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등부 교육부장관상, 전북교육감상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청년인턴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청년인턴형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인턴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분야 단체·기관과 청년을 연결해 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참여 청년들의 문화예술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둔 만18~39세 이하의 전국 대학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 재학·졸업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지난달 선정된 6개 기관에 매칭돼 총 6개월 간(5~10월) 주5일(1일 8시간) 근무하며, 전라북도 생활임금 기준에 의해 지원된다. 특히 재단이 진행하는 기본교육 및 컨설팅(15시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전자우편(ooi-js@jct.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교육문화팀(063-230-745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대학 '문화재 그 이면의 이야기' 강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4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023 박물관대학'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그 이면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문화재 취재현장을 누비면서 문

화계에 명망을 쌓아온 전현직 기자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문화재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자로는 역사전문기자로 김태식 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 김상운 동아일보 경제

부 차장, 이광표 서원대학교 교수(전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박종인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전 논설위원), 노형석 한겨레신문 문화재미술 전문기자,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전 경향신문 대기자) 등이다.

관련 수강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2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JMA Friends Event '소리를 그리다' 공연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전북도립국악원과 공동으로 JMA Friends Event '소리를 그리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JMA Friends Event '소리를 그리다'는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 생생한 연주를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국악기 연주를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립미

술관 야외정원 웰컴라운지에서 실시된다.

첫 공연인 4월 8일에는 전북도립국악원의 김정연(김죽과 가야금산조), 위은영(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박인정(김일구류 아쟁산조), 기약함 주 신평노래 '3인 3색'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jnbukmuseumofart)과 JMA FRIENDS 공식 SNS(jma_friends), 페이스북(jma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